

〈운영전〉의 비극성 연구*

— ‘인지 격차’와 ‘판단 착오’를 중심으로

조현우**

<차 례>

1. 문제제기
2. 회상과 ‘인지 격차’의 발생
3. ‘판단 착오’와 비극성의 형성
4. ‘안평성시’와 수성궁의 이중적 면모와 아이러니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운영전>을 억압과 자유의 구도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반봉건적인 주제로만 이 작품을 이해하게 되면, 고소설사에 보기 드문 복잡하고 정교한 서사 구조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 또 결말 부분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드러내는 질은 회한과 슬픔, 그리고 작품 전체를 휘감고 있는 비극성을 온당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운영전>의 복잡한 액자 구성과 시점의 착종이 어떻게 비극성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2장에서는 <운영전>의 액자 구성이 운영과 김진사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주목했다. 회상은 현재의 서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서술자아와 경험자아 사이에 사태의 진행과 그 추이,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지 격차’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인물이 내리는 판단이 착오로 판명되는 과정과 그것이 어떻게 비극적 효과를 창출하는가를 살폈다. 안평대군이나 운영, 그리고 김진사는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7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혀 무관하게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인지 격차로 인해 그들이 모르는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을 서술자와 독자는 지켜보게 된다. 또한 윤영과 김진사의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선택지가 비극적 결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노력은 비극성을 형성하게 된다. 4장에서는 ‘안평성시’와 수성공의 이중적 면모를 살피고, 이것이 비극적 아이러니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윤영전>은 회상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비극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비극성은 경험자와 서술자 사이의 인지적 간극을 통해 가능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금의 나는, 아무 것도 몰랐던 그때의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찰나의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사랑이 가능했던 조건과 그 사랑의 실패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이 러저러한 선택이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도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이 소설은 비극이 된다.

□ 윤영전, 비극성, 회상, 인지 격차, 판단 착오, 아이러니

1. 문제제기

<윤영전>¹⁾이 17세기 소설사, 더 나아가 한국 고전소설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굳이 첨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윤영전>은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이며, 그에 따라 연구사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윤영전>의 연구사²⁾를 검토해 보면, 서사 구조나 시점 등 서사의 ‘형식’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윤영전>의 번역문과 원문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다.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 들베개, 2007, 29~109쪽; 박희병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333~383쪽. 이하 인용문은 각주로 번역문과 원문의 쪽수만을 밝히도록 하겠다.

2) <윤영전>의 연구사는 이미 양승민(2002)에서 정리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본고에서는 별도로 연구사를 정리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양승민, 『<윤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우쾌제 편,

에 대한 연구³⁾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점차 드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운영전>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과 죽음을 ‘봉건적 억압에 대한 비판과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옹호’로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전>이 겹겹의 복잡한 액자 구성과 시점의 착종이 드러나는 소설이라면, 이처럼 복잡한 구성이 내용적 측면과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는가, 독서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지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억압과 자유’라는 구도⁴⁾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⁵⁾ 이러한 관점으로 <운영전>을 해석하면 소설의 결말은 선뜻 이해되지 않

『고소설 연구사』, 월인, 2002, 123~149쪽.

- 3)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성현경, 「<운영전>론 (1)-<운영전>의 구조와 의미」,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107~116쪽; 윤혜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120~140쪽; 김장동, 「<운영전>의 시점과 시제 의식」,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97~111쪽;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23~161쪽.
- 4) 양승민은 <운영전>에 나타나는 애정의 성격을 ‘반봉건성’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양승민(2002), 앞의 논문, 141쪽.) 이러한 경향의 논의들은 무척 많은데 그중 본고에서 참고한 논의들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163~184쪽; 정출현, 「<운영전>의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석현정규복박사 고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575~612쪽;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 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쪽;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 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2~103쪽; 정길수, 「17세기 소설의 사랑과 운명」,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77~208쪽.
- 5) 강상순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근대 이후 확립된 관념을 과도하게 투사한 근대주의적 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정곡을 찌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25~158쪽.

는다. 전기소설에서 죽음이란 세계의 황포를 상징한다. 즉 억압과 황포에 맞섰던 주체가 최종적으로 좌절하고 마는 것이 죽음으로 형상화된다. 운영과 김진사는 그들의 사랑이 비극적인 최후로 종결된 후, 선녀와 선관으로서 재회한다. 적강했던 존재로 설정된 이들의 재회는 이승에서의 못다 한 인연을 다른 세상에서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결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운영과 김진사는 재회했음에도 그리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또 결말 부분의 정조 역시 행복한 결말이 주는 미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한은 사라지거나 적어도 감소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극적 정조를 드러내는 이 소설에 적강한 존재들의 재회라는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억압과 자유’의 구도로 <운영전>을 이해할 때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작품이 지닌 전례 없이 복잡한 액자 구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운영전>은 액자소설이다. 게다가 그 액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어서 몇 겹의 틀로 구성된다. 이러한 보기 드문 복잡한 구성은 초창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에는 구성 자체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거나 작품의 양상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⁶⁾ 그러나 이 작품의 복잡한 액자 구성이 작자가 상당히 공들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작품 전체의 주제나 비극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정길수는 <운영전>의 복잡한 액자구성이 중세의 억압 구조에 대한 불온한 문제제기를 완화하는 장치로 고안된 것이라고 보았다.(정길수(2009), 앞의 논문, 72~103쪽.) 그러나 작자가 상당한 공을 들였을 것이 분명한 이러한 구성이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한 구성으로도 얼마든지 주제의 불온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작품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만큼의 공을 들여 완화시켜야 할 정도로 불온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운영의 죽음 직전 자란의 발화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직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운영전>이 몽유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거기에 ‘희상’이 추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운영과 김진사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나 익숙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상을 통한 액자 구성은 이 시기 처음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상은 시점(視點) 혹은 시점(時點)의 착종⁷⁾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에서 서술자 운영의 시점은 자주 흔들리고 착종된다. 운영은 그녀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범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 서술자 운영에게 ‘1인칭 전지적 서술자’라는 독특한 위상을 부여했던 이유이다.⁸⁾ 그러나 ‘나’의 시점(視點)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1인칭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가를 질문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시점(時點)에 1인칭으로 과거를 진술하는 일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운영전>의 비극성을 그 구조와 연계하여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전>은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안평대군의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최후 때문에 비극성이 생겨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 작품 전체를 휘도는 비극적 정조⁹⁾는 그보다 더 깊은

7) 시점(視點)은 ‘누가 보는가’의 문제이고, 시점(時點)은 ‘언제 말하는가’의 문제이다. <운영전>은 회상을 통해 액자가 구성되기에, 이 두 가지 시점이 모두 문제가 되는 작품이다. 이 점은 2장에서 상술된다.

8) 조용호는 이 소설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시점의 착종 현상에 주목했다. 논자는 운영이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까지 서술한다는 점에서 ‘1인칭 전지적 서술자’라고 보았다.(조용호(1997), 앞의 논문, 123~161쪽.) 이 논문의 시점 논의는 조용호의 논의에 상당 부분 빚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시점의 착종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착종 현상이 빚어내는 서사적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전성운(2007)과 강상순(2011)은 <운영전> 전체에서 간취되는 ‘정조’에 주목했다. 전

고찰을 요구한다. 단순히 사랑하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액자 구성과 시점이 어떻게 비극적 효과를 창출하는가를 살펴야 비극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운영전>에서 사랑의 실패와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말하는가, 즉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인식’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태도가 액자 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영전>이 비극적 정조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지, <운영전>의 복합적인 액자 구성은 비극적 정조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회상과 ‘인지 격차’의 발생

<운영전>은 <구운몽>이나 <취유부벽정기>와 유사하게 묘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했다기보다 지식을 설명하는 것에 가까운 두 작품과는 달리, <운영전>은 실제 모습을 어떤 ‘위치’에서 직접 보고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운영전> 서두의 서술 묘사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그 인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성운은 <운영전>의 비극성에 대해 ‘비회적 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말의 비극성이 아니라 전편을 감도는 비회감이 어디에서 왜 기인한 것인가를 탐구했다. 강상순은 <운영전>을 포함하여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주정적(主情的) 혹은 감상적(感傷的)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검토했다.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적 정조」,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115~143쪽; 강상순(2011), 앞의 논문, 125~158쪽.

(가)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큰 길에 늘어선 시장이며 성 가득 으리번쩍한 집들이 바둑판의 바둑돌 모양, 하늘의 별들 모양 펼쳐져 있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고, 베틀에다 실을 가로세로로 짜 놓은 것처럼 구획이 뚜렷하였다. 동쪽으로는 아득히 궁궐이 바라보여 구름다리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고, 구름 안개가 쌓여 내는 비춧빛이 아침저녁으로 자태를 드러내니, 참으로 경치가 빼어난 곳이라 할 만하다.¹⁰⁾

(나)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서울의 궁궐이며 성 가득 화려한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¹¹⁾

두 묘사는 각각 서두에 나온 것과 유명이 등장한 후의 서울 묘사이다. 이 묘사에서 바라보는 위치는 수성궁에서 서울을 향하고 있기에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가)에서 외부 서술자의 눈을 통해 묘사되는 서울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다. 반면, (나)에서 유명한 눈에 비친 서울은 전후의 폐허에 가깝다. 이 두 풍경은 ‘성시(盛市)’와 ‘폐허’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갈라진다. 유명은 화려한 서울의 모습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떠올린다. 그런 점에서 <운영전>의 서두는 ‘누가 보는가’에 따라 세계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는가를 잘 보여준다.¹²⁾

10) 29쪽; 登臨俯覽 則通衢市廛 滿城第宅 碁布星羅 歷歷可指 宛若絲列分派 東望則宮闕縹緲 複道橫空 雲烟積翠 朝暮獻態 眞所謂絕勝之地也.(333쪽)

11) 30쪽; 登高四望 則新經兵燹之餘 長安宮闕 滿城華屋 蕩然無有.(334쪽)

12)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초점자’, 후자를 ‘서술자’로 지칭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말하는 이는 모두 ‘외부 서술자’이다. 그러나 누가 보는가에 따라 구분하면, (가)는 ‘외부 초점자’이고 (나)는 유명한 시점을 취하는 ‘인물 초점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자 중 한 분은 (가)와 (나)가 누가 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란 이전과 이후, 즉 과거와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사에 (가)와 (나)를 과거와 현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지

이 지점에서 새삼스럽게 유명이라는 인물의 존재 의의를 검토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운영전>에서 유명한 서사 속 기능은 묻는 일이고, 더 정확하게는 김진사와 운영의 회상이 특정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묻는 일이다. 그런데 액자 구성과 회상이 서로 관련될 수는 있다 해도, 그 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몽유록은 예외 없이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액자가 회상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작품은 없다. 그런 점에서 몽유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과거 회상이라는 구도는 <운영전>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다.¹³⁾ 또 유명은 과거에 대한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특정한 과거, 즉 안평대군과 관련된 과거를 묻는다. 이는 운영과 김진사가 과거를 특정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회상하도록 만든다.¹⁴⁾

<운영전>의 액자 구성은 ‘현재의 나’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위치에서 ‘과거의 나’를 회상함으로써 이 회상담을 듣는 유명과 읽는 독자들의 동일시와 몰입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¹⁵⁾ 회상하는 ‘현재의 나’

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 부분을 과거와 현재로 본다 해도 이 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시점(視點)의 교체가 세계를 어떻게 달리 인식하게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외부 초점자의 눈으로 서술된 (가)가 (과거의) 서울을 화려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유명한 눈에 포착된 (나)는 (현재의) 서울을 폐허로 인식한다. 즉 누가 바라보는가에 따라 서울은 전혀 다른 시대와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 13) <운영전>이 몽유록의 서사 전통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엄태식(2015)에서 깊이 있게 고찰된 바 있다.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337~367쪽.
- 14) 김경미는 유명이 김진사와 운영에게 과거를 회상하도록 만드는 ‘매개적 인물’임을 언급했다.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35~64쪽.
- 15) 김수연은 <운영전>이 ‘독서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텍스트이며, 액자 내부의 서사는 사건의 중심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효과를 준다고 보았다.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2010, 264쪽.

가 서술자이라면, '과거의 나'는 그 사태를 직접 경험하는 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자아 사이, 그리고 서술자아와 회상 속 인물들 사이에는 당연하게도 어떤 사태의 진행, 최종적 결과, 그 의미에 대해 현저한 인지적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액자의 안팎에서 그 착종, 혹은 '얹'의 차이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얹의 차이를 '인지 격차'¹⁶⁾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액자 속 이야기인 운영의 회상은 안평대군과 궁녀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 독자에게 요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안평대군의 위상과 재질, 그에게 선택된 궁녀들의 이름, 궁녀들의 교육 과정과 그 성취 등이다. 그 후 서사는 곧바로 안평대군의 요구로 열 명의 궁녀들이 시를 짓던 어느 하루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에서 '처음'이 아닌 '중간', 즉 '사태 한 가운데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시를 지으라고 명령한 어느 하루는 회상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지만, 전체 이야기의 순서를 재구해 보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이미 깊어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운영전>의 액자 속 서술자인 운영은 청자인 유영과 독자들을 모든 일들의 맨 처음이 아니라 갈등이 겹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느 하루로 갑작스럽게 데려다 놓는다. 사소한 오해처럼 보였고 금세 봉합되었던 갈등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이었음이 점차 드러난다.

회상의 실질적 시작으로 왜 하필 그 하루가 선택된 것일까? 이는 역으로 안평대군이 시 짓기를 요구했던 그 하루가 회상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된다. 이 하루는 안평대군의 인생에서 절정기에 위

16) '인지 격차'는 사태를 지각하는 일과 그 의미를 전후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일 사이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시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즉 과거에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아는' 채로 그때의 사태를 진술하는 운영과 김진사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치한다. 안평대군은 사저로 나와 자신의 정치적, 예술적 동지들과 함께 하면서 수성궁을 정치와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선택한 궁녀들을 교육하여 5년 만에 성삼문 이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시인들로 성장시켰다. 서사는 바로 이처럼 안평대군의 절정기에 우연찮게 드러난 작은 균열을 잠시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안평대군과 나머지 인물들이 모르고 있던 사이에 그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음이 판명된다.¹⁷⁾

그런데 이러한 균열에 대해 등장인물, 서술자, 독자 사이에는 일정한 인지 격차가 발견된다. 이는 과거의 일을 현재 서술하는 회상의 구조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운영전>에서 나타나는 인지 격차를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다) 이때부터 밤이면 들어와 새벽에 나가는 일이 날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은 더욱 깊어져 이제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담장 안쪽에 쌓인 눈에 발자국이 남아 궁인들 모두 진사가 출입하는 줄 알고 위태롭게 여기고들 있었는데도 말이어요.¹⁸⁾

인용문 (다)는 김진사와 운영이 첫날 밤 이후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 모습과 그에 따라 발각될 위험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에서 과거 회상의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회상은 과거를 현재의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험한 과거의 자아와 이를 기

17) 전성운은 안평대군의 세계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이 수성궁의 가장 흥성한 시기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운영의 시에서 수성궁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비희의 씨앗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전성운(2007), 앞의 논문, 127쪽.

18) 86쪽; 自是以後 昏入曉出 無夕不然 喜深意密 自不能知止 牆內雪上 頗有蹤痕 宮人皆知其出入 莫不危之.(368쪽)

역하여 서술하는 현재의 자아 사이에 정보와 인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영전>에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 자아 사이의 인지 격차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과거의 일을 ‘날마다 되풀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존재는 현재의 서술자이다. 또한 현재의 자아는 그 일에 대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도 하다. 즉 과거와 현재의 자아는 당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하며 요약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다)에는 또 다른 인지 격차도 나타난다. 눈에 남은 발자국을 통해 김진사의 궁궐 출입을 모든 궁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서술은 이야기 속 인물들 간의 인지 격차를 드러낸다. 즉 이 시점 이전에 김진사의 출입에 관한 정보는 몇몇 궁인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건의 반복과 김진사 및 운영의 견잡을 수 없는 사랑이 의도치 않게 그 정보에 관한 인물들 사이의 인지 격차를 해소했던 셈이다.

(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으나 거듭 읽노라니 자란의 시가 뜻이 심원하여 나도 모르게 감탄하고 흥겨운 마음이 드는구나. 나머지 시들 또한 모두 맑고 좋은데,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거늘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준엄히 깨물을 일리로되 그 재주가 아까워 그냥 덮어두기로 한다.”¹⁹⁾

인용문 (라)는 궁녀들에게 시를 짓도록 한 후, 그 시를 평가하는 안평대군의 말이다. 안평대군의 말이 직접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과거와 현재 자아 사이의 인지 격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19) 43쪽; “我初見詩 憂劣莫辨 再三翫繹 則紫鸞之詩 意思深遠 令人不覺嗟嘆而蹈舞也 餘詩亦皆清雅 而獨雲英之詩 顯有惆悵思人之意 未知其所思者何人 事當訊問 而其才可惜 故姑置之.”(342~343쪽)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운영이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안평대군은 모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영의 시를 보고 안평대군은 두 가지를 짐작했다. 운영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중 안평대군에게 문제가 된 것은 후자다. 사실 시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궁녀가 운영만은 아니다. 부용도 초 회왕과 무산선녀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임금을 향한 “그옥한 마음(幽思)”을 언급했다.²⁰⁾ 성삼문은 이 구절에 “대군을 향한 정성(向君之誠)”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안평대군 역시 부용의 시에 자신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만을 문제 삼았던 이유는 그녀의 연모 대상이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평대군은 운영의 연모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정체를 모르고는 나머지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문제는 <운영전>의 서사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운영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아는 인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은 서사의 진행과 일치한다.²¹⁾ 운영에게 그녀가 연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직접 물었던 자란에서 출발하여, 서궁 사람들로 넓혀지고, 토론 과정을 통해 남궁 사람들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인용문 (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평대군을 제외한 모든 궁인이 알게 된다. 이후 안평대군까지 알게 되었을 때, 운영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운영이 누구를 그리워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20) 부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허공을 날아 비를 띠었다가/ 땅에 떨어지선 또 구름이 되었지/ 해 질 녘 어둑어둑한 산빛에/ 초나라 임금 향하는 그옥한 마음”(飛空遙帶雨 / 落地復爲雲 / 近夕山光暗 / 幽思向楚君).

21) 신재홍은 숨겨진 사건이 조금씩 드러나는 양상이 <운영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11~135쪽.

그 답에 대한 인물들 사이의 인지 격차 및 해소는 서사 진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전>에 나타나는 인지 격차의 세 번째 양상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자와 인물 사이의 인지 격차 및 그 효과이다. 운영의 연모 대상에 대한 안평대군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독자는 이 질문이 서사에 처음 등장했을 무렵부터 이미 그 답이 김진사임을 알고 있다. 독자는 유영이 만난 남녀의 이름이 김진사와 운영이며, 안평대군 시절의 사람들이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지만 비극적인 결말로 슬퍼하고 있음을 안다.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 속에 나타나는 그리움의 대상을 궁금해할 때, 김진사는 아직 회상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독자는 그 대상이 김진사임을 안다. 이렇게 되면 <운영전>의 서사 전개와 독서 과정은 사뭇 다른 양상이 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운영이 사랑하는 인물의 정체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과정이다. 반면, 독자들은 운영의 상대가 김진사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들의 곡진한 사랑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가의 과정에 주목하게 된다.

<운영전>의 구조와 인지 격차의 특징은 <영영전>과 비교해 보면 더 명료해진다. 두 작품의 스토리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이 주는 미감은 전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를 행복한 결말인가 아닌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²²⁾ <영영전>은 <운영전>과

22) 신동훈은 <영영전>이 단순히 <운영전>의 모방작이 아닌 일종의 문학적 반론으로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비극적 결말이 아닌 행복한 결말로의 결구가 단순히 독자의 심리적 위안을 위해 만들어진 아류작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차원의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정이라는 것이다. 음미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동훈,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국문학연구』 5, 국문

비슷한 스토리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비극적 정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영영전>은 회상담이 아니기에, 서술자와 경험자아, 인물 간, 그리고 인물과 독자 사이의 인지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영영전>은 김생과 영영의 첫 만남부터 결연에 이르는 우여곡절과 안타까운 이별을 곡진하게 그린다. 이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두 사람의 처지와 궁궐 안 밀회 중 발각될 위기와 같은 사건 그 자체에서 온다. 그런 점에서 <영영전>의 독자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혹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하면서 서사 진행을 따라가게 된다.

이와 달리 <운영전>은 ‘앓’의 문제가 서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이 작품의 액자 구조, 특히 ‘회상’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 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서사 초반 몽유자 유영과 독자는 김진사와 운영의 정체,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 결말까지 알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서술자 운영은 과거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데, 이에 따라 그녀는 자신이 당시 몰랐던 상황을 지금은 아는 상태에서 관찰하고 진술한다. 이러한 형식은 서술자와 경험자아 사이의 인지적 간극을 드러낸다. <영영전>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와 같은 인지 격차는 두 작품의 성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운영전>은 몇 겹의 액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액자는 운영과 김진사가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열린다. 그런데 운영의 회상은 간략한 인물 소개 이후 곧바로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시 짓기를 요구했던 어느 하루로 이어진다. 안평대군의 궁녀 교육과 성취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처럼 보였던 서사 진행은 안평대군의 의심과 자란의 질문으로 인해 회상 속 회상인 운

학회, 2001, 215~240쪽.

영의 고백을 불러온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전>의 액자 구성이 가진 중요한 특징인 인지 격차가 발생한다. 회상의 활용으로 인해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사이의 인지 격차가 생겨난다. 또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물들 사이에서도 인지 격차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회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운영과 김진사가 소개되고 그들의 결말이 어느 정도 암시되었다는 점에서, 독자는 청자인 유영과 함께 두 사람의 최종적 결말을 알고 시작한다. 회상담의 결말 혹은 두 사람의 파국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파국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진다.

3. ‘판단 착오’와 비극성의 형성

<운영전>은 액자구성, 특히 회상을 활용한 구성을 통해 인지 격차를 서사의 중요한 기제로 만든 작품이다. 2장에서는 경험자아와 서술자아, 인물들, 그리고 인물과 독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앎’의 차이가 해당 시점에서의 사건의 이해를 다르게 만든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 격차는 회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액자 구성과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서술자의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특성은 그 시점에서의 인물과 이를 되돌아보는 현재의 자아가 갖는 인지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에 따라 인물들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리는 판단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서술자와 독자는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3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비극성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에게만 유독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김진사처럼 빼어난 인물을 내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군께서 하신 일이며, 운영에게 베풀어 시중을 들게 한 것 또한 주군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²³⁾

인용문 (마)는 운영의 사랑이 결국 발각되었을 때, 자란이 한 진술이다.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의 결연에 안평대군 역시 책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외부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던 인물이다. 궁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운영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잠깐의 방심으로 외인인 김진사를 궁녀들과 만나게 했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궁녀인 운영을 김진사 옆에 앉게 함으로써 그 둘이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물론 안평대군은 이러한 결과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몹시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의 방문에 마음이 들떴고, 김진사가 아직 어린 소년이기에 ‘마음속으로 쉽게 여겼기(中心易之)’ 때문에 궁녀들에게 자리를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 안평대군의 이와 같은 방심과 사소한 실수는 엄청난 결과로 되 돌아왔던 것이다.

안평대군의 방심 혹은 ‘판단 착오’²⁴⁾는 단순히 궁녀들에게 피하라고 하

23) 100~101쪽; “主君何使雲英獨無雲雨之情乎? 金生 人中之英 引入內堂 主君之事也 命雲英奉硯 亦主君之命也.”(377~378쪽)

24)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단 착오’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로 언급했던 ‘하마르티아(hamartia)’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통해 인물이 자신 혹은 타인의 앞날에 대해 내리는 ‘악의 없는’ 판단 착오’를 설명한다. 그리고 운명이 뒤바뀌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과정이야말로 비극의 본질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뒤늦은 깨달음’은 특히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는 사건의 줄거리인 스토리와 서술자에 의해 제시되는 사건의 순서인 플롯의 구분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가령, 오이디푸스 신화는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시작해, 무시무시한 예언, 버려짐 등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전개된다. 그러나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가 다스리는

지 않은 것만이 아니다. 자란 김진사가 몹시 빼어난 인재이며,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안평대군이었다고 지적한다. 김진사의 빼어남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지 않는다.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은 김진사의 시를 읽고 안평대군과 마찬가지로 그의 뛰어난 재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한 안목은 안평대군이 그녀들을 선발하여 교육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안평대군은 운영의 시를 읽고 의심한 그 날 이후 궁녀들을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한다. 운영이 보내진 서궁은 남궁에 비해 더 깊고 외진 곳이다. 운영에 대한 안평대군의 의심과 각별한 관심이 그녀를 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김진사가 운영과 잦은 만남을 남몰래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인적이 드문 서궁에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운영의 회상은 안평대군과 궁녀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아무하고도 마주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궁

테베에 역병이 들고 있는 현재로부터 이 사태의 기원이 된 과거의 비밀이 폭로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극 초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상황에서 라이오스의 살인범을 잡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공언한다. 오이디푸스의 호연장담은 신화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객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최종적 파국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 관객과 오이디푸스 사이의 인지 격차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플롯으로 인해 극대화된다. 하마르티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강대진, 『비극의 비밀』, 문학동네, 2013, 165~212쪽;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수사학/시학』, 숲, 2017, 340~404쪽;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204~216쪽.

- 25) 엄기영은 운영과 김진사에게 수성궁이 억압적이지만 한 공간이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즉 수성궁은 그들의 사랑이 ‘은밀하게,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논자는 수성궁이 가진 깊숙하고 폐쇄적인 속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의 사랑이 제한적이거나 가능했다고 보았다. 엄기영, 『<운영전>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과 그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157~176쪽.

밖 사람이 이름을 알면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등장한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면모는 그동안 중세적 억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만약 작가가 안평대군의 면모를 억압의 상징으로 그려내고자 했다면, 운영의 회상담 맨 처음 부분보다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지점에 이러한 장면을 위치시키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안평대군의 명령은 그의 부정적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어기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는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자관은 안평대군이 자신이 한 명령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 그리고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에는 그의 책임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평대군의 명령은 그의 판단 착오를 보여준다.

그렇게 본다면 운영과 김진사의 결연과 사랑은 의도와 결과가 불일치하는 안평대군의 행위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정이 포함된 질문을 만들어보자. 만약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안평대군의 예상대로 궁녀들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더라면? 안평대군이 김진사를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김진사가 왔을 때 안평대군이 자신의 명령을 떠올리고 궁녀들을 피하게 했더라면? 안평대군이 하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운영에게 김진사의 벼루 시중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안평대군이 운영을 의심했을 때, 깊고 외진 서궁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가정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실현되지 않았다면, 김진사와 운영의 운명적 사랑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다.²⁶⁾

26) 박일용은 운영과 김진사가 비극적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야말로 중세적 질서에 항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박일용(1987), 앞의 논문, 177쪽.) 본고에서는 ‘예측’의 내용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본다. 운영과 김진사는 자신들의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리라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서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사랑의 성취

(바) 대군이 즉시 하인과 말을 보내 진사를 초청했습니다. 잠시 후 진사가 도착하여 자리로 오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몸은 훌쩍한 것이 예전의 기상 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군이 위로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사는 굴원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연못가에서의 초췌한 모습부터 미리 가진 게요?” 모여 있던 이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²⁷⁾

인용문 (바)에서 안평대군은 초췌해진 김진사를 두고 굴원에 빗대어 농담을 건넨다. 굴원은 초나라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 먼 곳으로 유배를 왔고, 번민과 괴로움에 초췌한 몰골이 되었다. 김진사는 궁녀인 운영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초췌해졌다. 안평대군은 김진사가 왜 초췌해졌는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의 판단 착오에서 나온 이 농담은 사정을 알고 있는 김진사나 운영,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굴원은 왕에게 버려졌다는 이유 때문에 괴로워했던 인물이다. 김진사는 안평대군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기에 그로부터 초대와 각별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운영은 특별히 선택되어 교육 받았던 10명의 궁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은 궁녀이다. 즉 김진사와 운영은 안평대군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안평대군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운영과 김진사는 안평대군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었다.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이때 그들의 노력과 예측은 계속 ‘판단 착오’로 귀결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측과 그 실패에 좀 더 주목하고자 했다.

27) 57~58쪽; 大君卽送人馬請之 俄而進士至而就坐 形容瘦癯 風槩消沮 殊非昔日之氣像 大君慰之曰 “進士未憂楚之心, 而先有澤畔之憔悴乎?” 滿坐大笑.(351쪽)

유는 그들이 가진 뛰어난 능력, 특히 시와 관련된 재능 때문이다. 그런데 시는 이들의 비밀이 폭로되도록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이들의 사랑은 안평대군의 의심으로 인해 파국을 맞는데, 그 의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지은 시의 내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진사는 안평대군에게 의심을 받자 운영에게 당장 떠나자고 종용하지만, 정작 이러한 위기를 불러온 인물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가 안평대군 앞에서 쓴 시로 인해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는 김진사가 운영과 만나게 된 계기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김진사는 시 때문에 안평대군의 초대를 받았고, 그 앞에서 쓴 시 때문에 운영의 인정과 사랑을 얻었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교육을 통해 평범한 궁녀에서 뛰어난 시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김진사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 운영과 김진사는 안평대군과 마찬가지로 시가 성정을 그대로 표출한다고 믿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시로 숨김없이 표현하고 그로 인해 파국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들이 만나게 된 이유,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모두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다.

안평대군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점을 전혀 모른다. 그가 내리는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혹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서술자나 독자가 그와는 다른 범위의 정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운영전>에는 이처럼 인물과 독자가 갖는 인지 격차로 인해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는 판단이 완벽하게 착오임을 알 수 있게 되는 장면들이 존재한다.

(사) 잘못 전해져 재앙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게.²⁸⁾

28) 61쪽; 愼母枉傳 以作禍機.(353쪽)

(아) 특의 의도는 이 보물들을 얻은 뒤에 저와 진사를 산골짜기로 끌어들여 진사를 죽이고 저와 보물을 모두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진사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인지라 이를 몰랐던 것이지요.²⁹⁾

(자) 특이 원래는 몹시 흉악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충성을 다하고 있소. 오늘 날 그대와 이처럼 좋은 인연을 맺은 것도 모두 특의 계책이지 않소. 처음에 충성을 바치다가 나중에 가서 해코지를 할 까닭이 있겠소?³⁰⁾

위의 인용문들은 김진사의 판단 착오를 잘 보여준다. (사)는 김진사가 무녀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하면서 당부했던 말이다. 이 시점에는 그의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편지가 혹시라도 잘못 전달된다면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은 편지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편지가 운영에게 ‘제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김진사는 편지가 운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전달될까 염려하면서도, 그러한 편지의 작성과 전달 자체가 자신과 운영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언급한 “재앙의 빌미(禍機)”는 그의 걱정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무지 때문에 생겨났다.

인용문 (자)에서 운영은 꿈을 통해 특을 의심하게 되고, 이를 김진사에게 전한다. 이에 대해 김진사는 특이 그들의 결연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음을 들어 반박한다. 특이 두 사람이 결연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다. 가령 특이 제공한 사다리와 신발은 김진사가 수성궁 안으

29) 89쪽; 蓋特意 得此重寶而後 妾與進士 引入山谷 屠滅進士 而妾與財寶自占之計 而進士以迂儒不知也.(370쪽)

30) 91쪽; 此奴素多頑兇 然於我則盡忠 今日與卿結此好緣 皆此奴之計也 豈獻忠於始 而爲惡於終乎?(371쪽)

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자)는 이 시점에 김진사가 내린 판단을 드러낸다. 독자는 그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한 앎은 그 장면 이전에 (아)의 정보가 서술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서술자인 운영의 판단을 공유하는 독자들은 김진사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안평대군이나 김진사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드는 판단 착오를 보여 준다면, 무녀와 특은 별 뜻 없이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무지한 채로 섬뜩한 진실을 내뱉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종류의 착오를 드러낸다. 특과 무녀는 모두 김진사가 오래지 않아 죽게 될 것임을 언급한다. 무녀는 김진사가 가진 계획이 “사리에 맞지 않는 계책(齟齬之策)”이며, 그가 3년 안에 죽으리라고 예언한다. 특은 김진사의 안색을 보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이들의 말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상황도 아니기에 발화되는 순간에는 상대에게 특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또 이들은 이 시점에 운영과 김진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들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면서, 자신들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운영과 김진사의 최후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들의 말이 갖는 적확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서술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얻은 독자뿐이다.

(차) “더구나 천지가 하나의 그물 안에 들어 있으니 하늘 위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니? 만일 잡히면 그 재앙이 네 몸에만 그치겠어? … 네가 좀 더 나이 들어 얼굴이 시들면 주군의 사랑도 차츰 식어갈 거야. 그 즈음 형세를 보아 병들었다며 오래 누워 있으면 필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허락하시겠지. 그때 가서 낭군과 손잡고 돌아가 함께 살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니? 지금 이런 생각을 못하고 감

히 사리에 어긋나는 계책을 내다니, 네 비록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늘
마저 속일 수 있을 것 같나?”³¹⁾

인용문 (차)는 김진사와 운영의 도주 계획에 대한 자란의 비판이다. 그
런데 자란이 운영의 사랑에 공감하여 그녀와 김진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
도적으로 도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논리는 모순투성이다.³²⁾ 그녀
는 두 사람이 수성궁 밖으로 나가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자란은 세월이 지나 미모가 시들면 그때 궁을 떠나 김진사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다. 자란이 내놓은 대책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나며
지 궁녀들의 안위, 그리고 안평대군의 마음까지 모두 고려한 방법이다.

이 시점에 운영과 김진사 앞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김진사의 제안대로 그날 밤 궁에서 달아나는 것이
다. 이는 그날 당장 시행해야 하는 계책이다. 둘째, 그날 밤 떠나는 것은
포기하고 일단 궁에 남아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다시 찾는다. 이것은 첫
번째 계획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그날 떠나는 것을 잠시 유예하는 것이다.
셋째, 자란의 제안에 따라 미모가 시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인 기다
림을 요구하는 길이다. 김진사와 운영, 자란 모두 이 중에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이들 모두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
현 가능성이 높은 길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운영전>은 수성궁이 안평대군의 ‘옛 집’이고,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31) 92쪽: “且天地一網罟 非陞天入地 則逃之焉往? 倘或被捉 則其禍豈止於嬈子之
身乎? … 娘子若年貌衰謝 則主君之恩眷漸弛矣 觀其事勢 稱病久臥 則必許還鄉
矣 當此之時 與郎君携手同歸 與之偕老 則樂莫大焉 今不此之思 而敢生悖理之
計 汝雖欺人 欺天乎?”(371~372쪽)

32) 이상구(1998), 앞의 논문, 133~176쪽.

되어버렸다는 정보로 시작된다. 또 이 소설이 창작될 무렵에 안평대군의 비참한 최후가 거의 상식과 같은 것이었다면, 운영, 김진사, 자란의 토론 및 그 속에서 도출된 세 가지 가능성은 비극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위의 가능성 중 두 번째가 서사에서 실현된다. 그 결과 김진사와 운영은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그렇다면 첫 번째나 세 번째의 가능성은 어떨까? 첫 번째의 것은 (아)에서 서술자인 운영에 의해 이미 진술되었다. 그들이 궁 밖으로 나섰다면, 김진사는 특에게 죽고 운영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³³⁾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은 어떨까? 세 번째 가능성은 서사 내에서 아무런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설의 시작에서 안평대군과 수성공의 최후는 이미 암시되었다. 안평대군은 소설 속의 ‘좋았던 시절[盛時]’이 지나자마자 수양대군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해 사사된다. 수성공은 폐허가 되고, 그의 가솔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공신들과 왕실의 노비가 되었다.³⁴⁾ 만약 운영이 자란의 말을 들었다면, 그녀와 김진사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운영과 김진사 앞에 놓여 있었던 가능성들은 모두 비

33) 大谷森繁은 김진사와 운영이 궁극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궁중 탈출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것 때문이며, 그들이 만약 탈출만 했다면 해피엔드로 끝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大谷森繁, 『<雲英傳> 小考』, 『朝鮮後期 小說讀者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69~175쪽.) 그러나 이는 운영의 진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인용문 (아)에 나온 진술이 서술자인 현재의 운영이 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4) <세조실록>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는 안평대군의 사후 수성공의 궁녀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된다. “어서로 의금부에 하지하기를, ‘이용(李瑢)의 계집종 사랑귀(思郎貴), 비귀연(非貴燕)은 본래 내수소의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내수소의 관리들이 본궁의 노비라고 함부로 일컫고, 도관의 관리들도 또한 내수소의 문적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간청을 치우쳐서 들어주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함부로 아뢰고 공신이 이미 받은 노비를 빼앗았으니, 그것을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세조실록>, 6년 경진(1460) 5월 3일.)

극적 최후로 귀결된다. 액자 이야기 속 인물들은 이를 모르고 진지하게 토의하지만,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로서의 운영이나 이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독자들은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안다. 또한 이들의 사랑을 돕거나 방해하는 인물들 역시 이미 죽었음을, 특히 안평대군이 계유정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회상 속 인물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 내리는 판단이 어떻게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심지어 상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가를 목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그들의 당시 판단이 얼마나 부질없는 착오였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물들의 판단 착오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실 그들의 판단은 그 시점에서라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김진사가 특을 신뢰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특은 결연에 상당한 공을 세운 인물이기에 별다르게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를 막연한 꿈 때문에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진사가 내린 판단이 착오임은 이미 모든 사태가 다 지난 후, 최종적 상황을 모두 아는 서술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미리 얻은 독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을 ‘모르는’ 인물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리는 판단,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착오이며 오히려 파국으로 치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독자들 사이의 인지적 간극은 극대화된다. 바로 이러한 간극이야말로 비극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운영전>의 비극성은 최선을 다한 인물들의 판단 착오와 그 착오에 대한 인물과 독자의 인지 격차에서 생겨난다.

4. ‘안평성시’와 수성궁의 이중적 면모와 아이러니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기 전 다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즐기는 곳을 벗어나 인적이 끊어진 후원을 찾아들었던 인물이다. 그는 그곳에서 소동파의 시 구절인 ‘我上朝元春半老, 滿地落花無人掃’를 읊는다. 유영이 수성궁을 찾아갔던 시기는 온갖 꽃들이 만개한 봄의 절정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이 아니라 떨어진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봄이 이미 반이나 지났다(春半老)’며 슬퍼한다. 그에게 봄의 절정이란 아름다웠던 봄이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이기에, 그것이 아름다울수록 오히려 슬픔을 배가시킬 뿐이다. 그는 ‘성춘(盛春)’의 풍경을 보고 기쁨을 느끼기보다 ‘상춘(傷春)’의 감정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영은 화려한 서울의 풍경에서 역으로 전쟁의 참혹함이 남긴 상처를 떠올리는 인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퇴락한 수성궁의 모습에서 그것이 한창 아름다웠던 때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렇기에 그는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수성궁의 절정이었던 시기의 일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영이 김진사에게 질문했던 ‘安平盛時之事’는 단순히 ‘안평대군 시절의 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다. ‘安平盛時’란 ‘평안하고 성대했던 시기’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또 수성궁³⁵⁾ 역시 ‘왕손이 장수할 궁[壽聖宮]이나 ‘장수가 이루어지는 궁[壽成宮]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유영은 ‘퇴락한 현재’와는 다른 ‘성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질문과 그에

35) 수성궁은 이본에 따라 壽成宮 혹은 壽聖宮으로 표기된다. 신경숙(1990)에서는 본래 壽成宮이었던 궁의 명칭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증건하는 과정에서 壽聖宮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어문학회, 1990, 55~84쪽.) 두 표기 모두 본고에서 언급하는 서사적 효과와 관련된다.

대한 답으로서의 회상담을 듣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앎과 운영의 부지소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안평성시’와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다.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영의 회상은 안평성시의 어느 하루에서 시작된다. 그 하루는 안평대군의 절정기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존재했고 비극적 결말의 단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운영의 회상 속 회상은 그 뿌리가 안평대군의 판단 착오였음을 보여준다. 또 안평대군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 또 운영과 김진사 역시 자신들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판단 착오를 저지르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 과정에서 수성궁이 이중적 면모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에게 수성궁은 억압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되어 있음을 수성궁에서의 배움을 통해 깨닫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 인정해 주는데, 이와 같은 지음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함께’ 간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³⁶⁾ 요컨대 이들이 수성궁에 간혀 있다는 조건은 그들을 억압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억압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서로를 알고 지음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운영과 김진사에게 수성궁은 그들의 애정을 가로막는 장벽인 동시에,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제한적이거나 애정이 허용되었던 공간이라는 지적³⁷⁾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안평성시’의 수성궁에는 억압과 자유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김진사와 운영이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 그리고 그들이 결국 사랑에 실패한 까닭도 수성궁의 이중적 면모와 관련된다. 수성궁은 안평대군이

36) 김경미(2002), 앞의 논문, 46쪽.

37) 엄기영(2011), 앞의 논문, 157~176쪽.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문화적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제일의 재사였던 김진사가 그곳에 초대되어 특별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운영은 수성궁에서 선택되어 배웠기 때문에 김진사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운영이 수성궁의 궁녀였을 뿐만 아니라 안평대군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사와 운영이 수성궁 ‘밖’을 꿈꾸기 시작하자 서사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그들을 충실하게 도와주었던 조력자들은 갑자기 방해자로 바뀐다. 특은 김진사가 궁 밖에서 궁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지만, 김진사와 운영이 궁 안에서 궁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결정적 훼방을 놓는 인물이 된다.³⁸⁾ 자란은 김진사가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책을 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직접 맞이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자란은 갑자기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부정하고 현실을 돌아보라고 충고한다. 자란 역시 특과 마찬가지로 김진사가 수성궁 안을 향할 때 성실한 조력자였지만, 김진사와 운영이 수성궁 밖으로의 탈출을 꿈꿀 때 강력한 방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김진사 역시 마찬가지다. 김진사는 수성궁 안에서는 더

38) 특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그에 대한 해석은 연구사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최근 정길수는 특이 “없어도 무방한, 오히려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캐릭터”이며 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작자가 이러한 인물을 만들어 낸 것은 ‘자유와 권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정길수(2009), 앞의 논문, 95~97쪽.) 특의 이러한 변심은 급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개연적이지 않다. 특은 교체란처럼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욕망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유충렬전>의 정한담처럼 현세에 악행을 저지르는 운명을 타고난 ‘본래적 악인’도 아니다. 필자는 특을 <이생규장전>의 흥건적처럼 서사의 특정 국면에서 특정 역할을 맡은 ‘기능적 존재로서의 악(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나위 없는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안평대군과 함께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든, 비밀스럽게 찾아온 밤의 시간 속에서든 재사(才士)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는 운영과 수성궁 밖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그에게는 재물도 조력자도 없다. 운영이 죽은 이후 자신을 한 번 배신했던 특에게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김진사가 수성궁 밖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웅변한다.

김진사, 안평대군, 자란, 특은 모두 수성궁 안과 밖을 기준으로 상반된 면모를 드러낸다. 그런데 핵심은 그들이 선한 인물 혹은 사랑의 조력자였다가 그 반대의 면모로 급작스럽게 변모한다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모두 사랑의 절정과 그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했던 존재이자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양면성은 사태를 겪고 있는 그 시점의 주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주체의 깨달음은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내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금의 나는, 아무 것도 몰랐던 그때의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 1인칭 회상담을 통해 찰나의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사랑이 가능했던 조건과 그 사랑의 실패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선택했던 길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더라도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모든 사태가 다 끝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깨달을 때, 이 소설은 비극이 된다.

따라서 적장 모티프의 활용을 통한 운영과 김진사의 재회는 그들의 사랑이 다시 이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실패를 곱씹고 재진술함으로써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지 격차와 판단 착오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정이다. 그들은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지금 다시 진술함으로써 자신들의 판

단 착오와 무지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슬픔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어야 했다’와 같은 후회가 아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현재 시점에 과거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사랑이 가능했던 조건, 조력자, 공간이 곧 그 사랑을 파국으로 이끌었던 조건, 방해자, 공간과 고스란히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더라도 결국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운명을 다시 한 번 목도할 때, 좌절과 슬픔이 생겨난다. 운영과 김진사는 회상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한 번 더 살게 된다. 이 때 그들의 좌절과 슬픔은 첫 번째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재현하고 재진술하는 두 번째의 삶 때문에 생겨난다.

여기서 비로소 유영이 부지소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유영은 현실에서 소외된 존재이며, 퇴락한 수성궁에서 찬란했던 안평성시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물이다. 이 점에서 그는 몽유록에 등장하는 몽유자의 성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³⁹⁾ ‘평안하고 성대했던 시기의 일’과 ‘김진사가 마음 상한 까닭’을 물었던 그의 질문은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핵심을 묻고 있다. 찬란한 봄날의 절정에 봄날이 이미 반이나 지나갔음을 슬퍼하던 유영은, 찬란했던 과거의 그때를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시절을 겪고서 사랑하던 사람과 다시 만났으면서도 왜 여전히 슬퍼하는가를 묻는다. 그에게 안평성시의 찬란했던 과거와 퇴락한 수성궁의 현재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속한 퇴락한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속하기를 꿈꾸는 인물이다. 그러나 김진사와 운영의 회상에서 찬란했

39) 엄태식은 유영의 부지소종이 몽유 과정에서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몽유록이 기본적으로 몽유자의 욕망이나 의문이 몽중체험을 통해 해소되는 구조인데, <운영전>의 몽유자인 유영은 그러한 해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소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엄태식(2015), 앞의 책, 366쪽.) 필자는 유영의 욕망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가 부지소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던 과거, 그리고 그 결과 슬픔에 가득찬 현재는 이어져 있다. 결국 유영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찬란한 과거란 결국 비참한 현재와 다르지 않으며, 그 시점을 다시 산다 해도 현재의 비참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운영전>을 억압과 자유의 구도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운영전>은 고전소설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액자 구성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러나 반봉건적인 주제로만 이 작품을 이해하게 되면, 그와 같은 서사의 구조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 또한 결말 부분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드러내는 짙은 회한과 슬픔, 그리고 작품 전체를 휘감고 있는 비극성을 온당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운영전>의 복잡한 액자 구성과 시점의 착종이 어떻게 비극성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2장에서는 <운영전>의 액자 구성이 운영과 김진사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주목했다. 회상은 현재의 서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서술자아와 경험자아 사이에 사태의 진행과 그 추이,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지 격차’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운영전>에는 서술자아, 청자인 유영, 그리고 독자는 과거의 사태에 대해 당시의 인물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은 채로 서사의 진행을 좇아간다. 그 결과 최종적 상태에 대한 의문보다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3장에서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인물이 내리는 판단이 착오로 판명되는 과정과 그것이 어떻게 비극적 효과를 창출하는가를 살폈다. 안평대군이나 운영, 그리고 김진사는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앞서 살핀 인지 격차의 효과로 인해 그들이 모르는 채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을 서술자와 독자는 지켜보게 된다. 또한 운영과 김진사의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선택지가 비극적 결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비극성을 창출하게 된다.

4장에서는 몽유자 유영의 질문이었던 안평성시와 수성궁의 이중적 면모를 살피고, 이것이 비극적 아이러니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영은 봄의 절정에서 그 봄의 끝을 떠올리고 슬퍼하는 인물이다. 그는 현실에서 소외되고 비참한 처지이기에, 수성궁의 절정이었던 ‘평안하고 성대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그는 운영과 김진사의 회상을 통해 그러한 그리움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수성궁은 억압과 자유가 공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안평대군, 특, 자란과 같은 인물 역시 수성궁의 안팎을 기준으로 상반된 면모를 동시에 가진 인물들이었다.

<운영전>은 회상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비극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비극성은 경험자와 서술자 사이의 인지적 간극을 통해 가능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금의 나는, 아무 것도 몰랐던 그때의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찰나의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던 사랑이 가능했던 조건과 그 사랑의 실패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이러저러한 선택이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도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이 소설은 비극이 된다.

참고문헌

- 박희병·정길수 편역, 『운영전』,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29~109쪽.
- 박희병 標點·校釋, 『雲英傳』,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333~383쪽.
- 강대진, 『비극의 비밀』, 문학동네, 2013, 165~212쪽.
-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25~158쪽.
-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35~64쪽.
-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2010, 264쪽.
- 김장동, 「<운영전>의 시점과 시제의식」,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97~111쪽.
- 大谷森繁, 「<雲英傳> 小考」, 『朝鮮後期 小說讀者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69~175쪽.
-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163~184쪽.
- 성현경, 「<운영전>론(1)-<운영전>의 구조와 의미」,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107~116쪽.
-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어문학회, 1990, 55~84쪽.
- 신동훈,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국문학연구』 5, 국문학회, 2001, 215~240쪽.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11~135쪽.
- 양승민, 「<운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우쾌제 편, 『고소설 연구사』, 월인, 2002, 123~149쪽.
- 윤해욱,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120~140쪽.
- 엄기영, 「<운영전>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과 그 의미」, 『Journal of Korean

- Culture』,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157~176쪽.
-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337~367쪽.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쪽.
-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204~216쪽.
-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115~143쪽.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2~103쪽.
- 정길수, 「17세기 소설의 사랑과 운명」,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77~208쪽.
- 정출현, 「〈운영전〉의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석현정규복박사 고회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575~612쪽.
-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23~161쪽.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수사학/시학』, 숲, 2017, 340~404쪽.

ABSTRACT

A Study on *Unyeongjeon* (雲英傳) as a Tragedy
— Focusing on the Cognitive Gap and the Error of Judgement

Cho, Hyun-woo

Though *Unyeongjeon* (雲英傳) has been regarded as the novel which criticized the feudalism in the Chosun Dynasty and advocated the free love, I tried to find what makes *Unyeongjeon* as a tragedy in this paper. *Unyeongjeon* is a novel with very complicated structure, because it is framed narrative with several frames. Most important frame of this text is related to the protagonist Unyoung's remembrance as analepsis. Analepsis is the literary device in narrative, in which a past event is narrated at a point later than its chronological order in a story. Therefore it is unavoidable to occur the gap of information and cognition between the narrator who narrates the past in the present and the characters who went through a variety of things at that time. Unyoung and Kim, the present narrators, have to remember and restate the past, especially including their misjudgement and wrong choice. In this process the present narrators get to know that the characters at that time did an error of discernment due to ignorance, to the lack of an essential piece of information. When the present narrators finally realize that there was no way to avoid destined catastrophe whatever they chose, *Unyeongjeon* becomes a tragedy. Suseongung (壽成宮) as the background of this text has a role to make their realization more tragic. Suseongung was the only place for Unyoung and Kim to be able to meet and love each other, whereas it was also the place for them to prohibit their love and disturb escape from there.

Key Words *Unyeongjeon*, Tragedy, Analepsis, Error of judgement, Cognitive gap, Irony

논문투고일 : 2018.10.13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